

#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총력’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 등 전문가 8명 자문위원 위촉

노관규 시장 “강점 체계적 정리…유치 실행력 등 강화”

순천시가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8명을 위촉하고,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용수·입지·재생에너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산업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시각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지식재산 분야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김춘기 기후생태연대 대표,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 이순형 동신대 교수, 맹종선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이지면 순천대

교수, 조성운 순천대 교수, 천영준 비즈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위원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 자료,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를 한층 고도화해 반도체 국가산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형 자문위원은 “전남 동부권 양질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광양항·여수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반도

체 국가산단의 최적지 중 한 곳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관규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단순한 입지 제안을 넘어, 종합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순천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외부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노관규 순천시장이 최근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장흥, 스마트농업 산업 생태계 구축 앞장

삼산간척지에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삼산간척지(관산을 삼산리·신동리 일원)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특화된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총 25.8ha 규모로, 간척지의 입지 특성을 활용한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군은 초기 기반 조성부터 단계별 확장까지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출발과 민간 참여 확대를 병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1단계(2026~2028년)에는 공공주도로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온실 4ha, 전제 5.8ha, 청년농 16명 입주)을 조성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3단계에서는 스마트팜 단지 확장과 함께 민간 투자 연계해 스마트농업 산업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성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스마트팜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

지원시설, 실증·교육 공간,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산·실증·확산이 연계된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군은 염해 간척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민간 투자 유치와 연계된 확장형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스마트농업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박동식 사천시장 등 관계자들이 최근 사천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미지답 사천포럼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 팔 걷었다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에 팔을 걷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와 함께 최근 사천시장 대강당에서 미지답 사천포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천호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

사천시와 우주항공산업 비전 구체화 등 논의 인구 구조 개선·지속 가능 발전 전환점 기대

시 특별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신상준 KAI 상무의 산업생태계와 K-우주항공의 미래,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사천과 고흥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신산업벨트를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명노신 경상국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섭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본부장, 김태형 KAI 협력사업회회장, 최성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용규 순천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우주산업 성장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 인구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군은 차세대 발사체 발사를 위한 제2우주센터 유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민간 연소시험시설, 민간 전용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고흥과 사천이 협력을 통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 곡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

내달 13일까지 복지 안전망 강화

곡성군은 겨울철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를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1442명을 대상으로 정밀 전수조사에 착수해 복지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발굴은 보건복지부의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감지된 가구를 선별한다.

군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11개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민관 협력 인력 안전망을 총동원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즉각 연계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급여를 신속히 지원한다.

특히 생계가 막막한 긴급 위기 상황의 경우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을 적용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을 연계해 난방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서적 지지 서비스 등 다각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절실한 시기다”며 “군민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내일 개최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 일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43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가 10일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약수제는 시민의 안녕과 고로쇠 수액의 풍성한 채취와 명품 고로쇠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향교가 제례를 주관한 행사는 국악·민요 공연, 12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합수제, 약수제례, 음복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행사장 인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제례 전 과정을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고로쇠 시음 부스를 운영, 신선한 고로쇠 수액을 마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백운산 약수제는 1980년대 초부터 경칩을 전후해 개최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후 온난화로 채취 시기가 앞당겨져 2월에 열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를 통해 지역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널리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모습.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로쇠 수액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산 고로쇠 약수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 제16호로 등록됐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 구례 300리 벚꽃축제, 내달 28~30일 열려

‘300리 벚꽃길 따라 즐거운 봄소풍’ 주제

제4회 구례300리 벚꽃축제가 3월 28~30일 구례 서시전체육공원, 문척면 사성암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제4회 구례300리 벚꽃축제 기본계획 보고회가 진행됐다.

‘구례 300리 벚꽃축제’는 구례 전역의 강과 마을, 산과 들을 따라 길처럼 이어지는 벚꽃 경관을 하나의 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 구례군의 대표 축제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구례 서시전체육공원, 문척면 사성암 주차장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벚꽃길을 중심으로 한 스탬프투어, 벚꽃캠프닉 등 가족과 연인

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신규 행사로 벚꽃 명패리기대회, 연날리기 체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00리 벚꽃길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는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 300리 벚꽃길은 전국 최장길이의 벚꽃길인 만큼 벚꽃길 테마를 잘 살리고, 관광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해 구례군을 대표할 랜드마크 및 축제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